

문화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작은도서관

정책 제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주하며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작은도서관정책 제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 현장의 바람입니다.

도서관이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회서비스 기관이다. 작은도서관은 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을 만들고 함께 읽는 독서공동체를 확산시켜 사회적 독서 활성화에 첫 시작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는 국민의 책 읽기를 권장하고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독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52.1%, 한해 독서량은 6.1권으로 2017년보다 7.8%, 약 2.2권 감소했다. 국민 절반이 1년간 여섯 권의 책을 읽는 현실이다. 독서가 어려운 이유로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접하고, 일과 학업으로 인해 도서관에 가거나 독서를 할 시간이 없다는 조사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독서문화진흥은 국가의 멈출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조성 등 외적 인프라에만 신경을 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작은도서관은 국가의 혈관과 같은 조직이다. 전국 6,330개소 작은도서관은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보편적 독서문화환경 조성은 그 무엇보다 쉽다. 작은도서관들은 이미 지역의 독서문화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 문화정책의 실현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의 체계를 도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은 중대한 과제이다.

협회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독서진흥의 성과를 이루고자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행복한 문화복지사회



작은도서관에서 시작됩니다

민관협력의 시작점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6,300개소 이상이며 이 중 사립작은도서관은 약 4,900개소를 차지한다. 13개 시도에 평균 480여 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확대 정책에 따라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담당자 한 명이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타업무와 겹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지원 및 관리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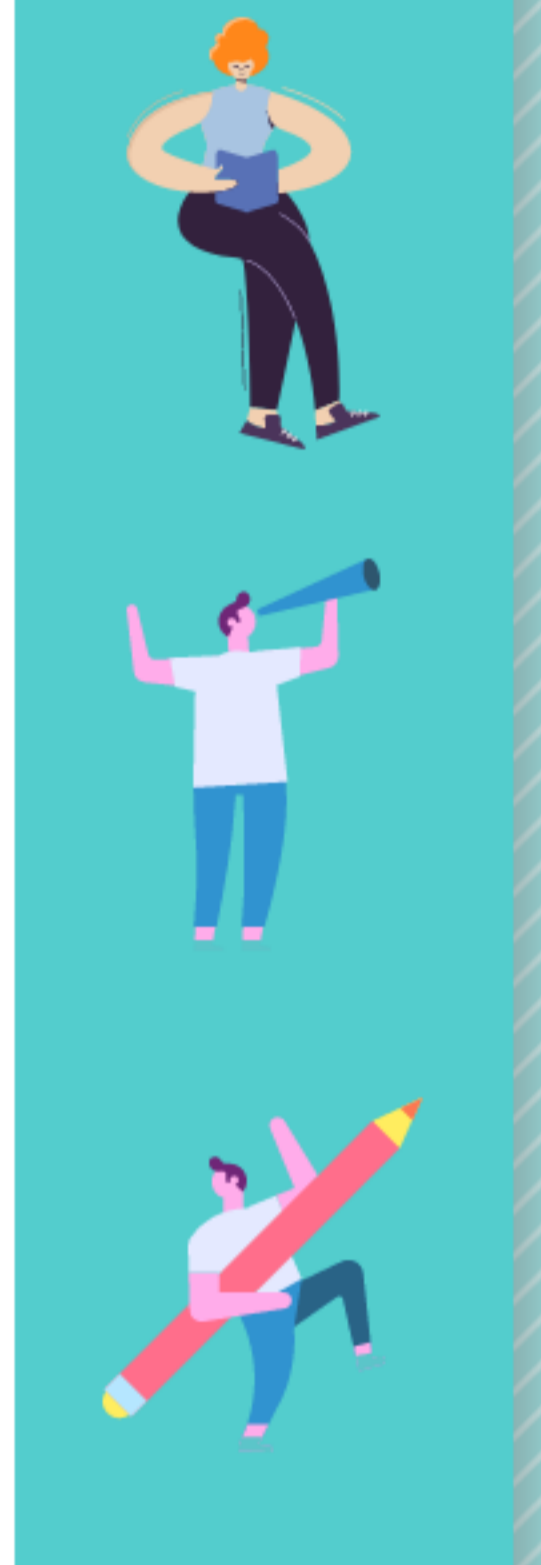
광역단위의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내 기구로서 장기적인 작은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관련법과 조례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은도서관 전담팀을 설치하여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지원센터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민관협력**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는 작은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작은도서관 역할과 밀접한 실제적 정책 및 제도 마련을 통해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 수준의 격차를 줄여 보편적 지원기준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
- 작은도서관 전담 인력 양성 및 확보를 통해 인력창출과 인력구조의 체계화 및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더 높인다.
-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는 민관협치의 소통 창구로서 주민참여와 자치활동, 지역 독서문화 활동을 수준별 맞춤 정책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독서 문화 환경 조성에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전국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곳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94%)와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이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근거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예산지원, 운영지원,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명칭이 '설치 및 운영', '운영 지원', '지원', '진흥' 등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조례의 내용 또한 계획 수립 주기, 지원기준과 범위, 지원 내용, 교류협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의 정책방향과 운영 수준의 격차가 매우 심하여 효과적인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과 보편적 독서환경 조성에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전국 작은도서관의 균등발전을 저해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표준 조례는 지역별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에 균형을 갖게 하고 국가 차원의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에 효율성을 높인다.
-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지원을 제안하고 전체적인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와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공공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작은도서관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 작은도서관의 난립을 막고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문화의 시대. 문화는 독서를 통해. 독서는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쉽다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개인적 독서를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고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를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중 '사회적 독서 활성화'는 함께 하는 독서공동체 확산 지원, 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 조성, 나와 우리가 만드는 독서문화 정착을 과제로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이미 사회적 독서 활성화의 과제들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장소로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일상적 책 읽기와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작은 단위의 실천들은 국가의 독서문화정책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독서문화증진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일반회계 예산을 2조 4429억 원 편성하고 이중 독서문화와 관련한 예산으로

출판산업육성(42,485백만 원) 내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7,209백만 원,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16,621백만 원) 내 길 위의 인문학 16,499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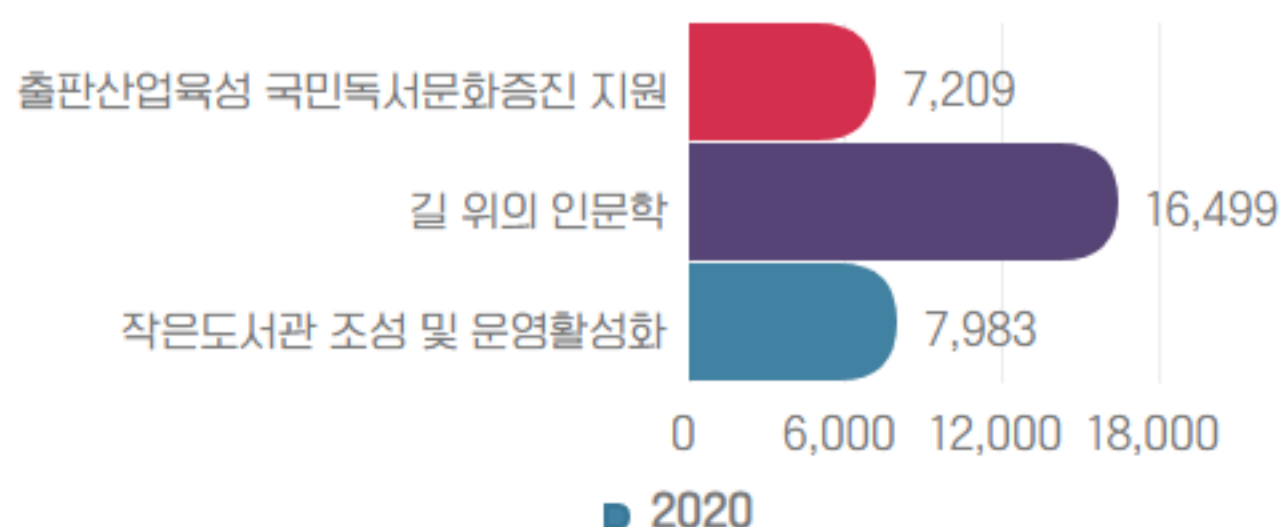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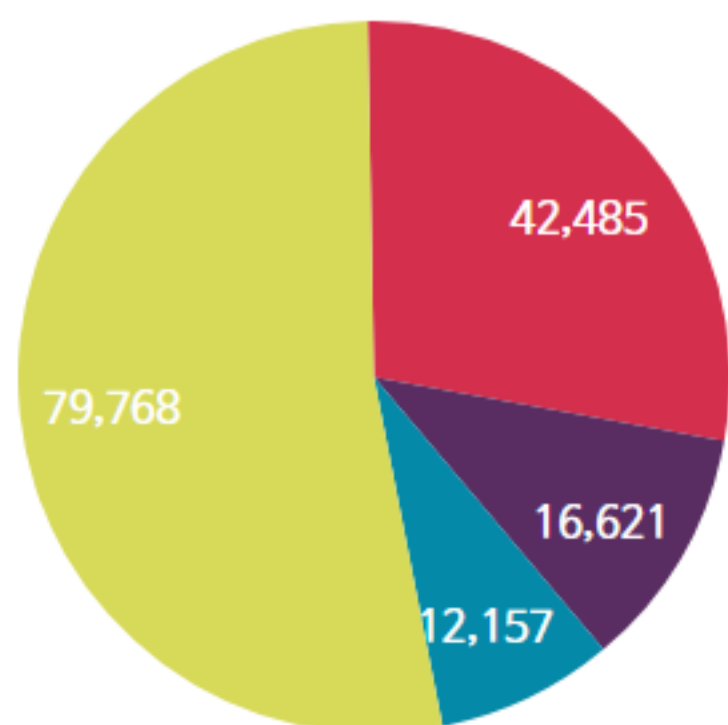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12,157백만 원) 내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7,983백만 원,

국립중앙도서관운영 79,768백만 원을 편성하였다.

독서문화 관련 예산

(참고 : 2020 예산각목명세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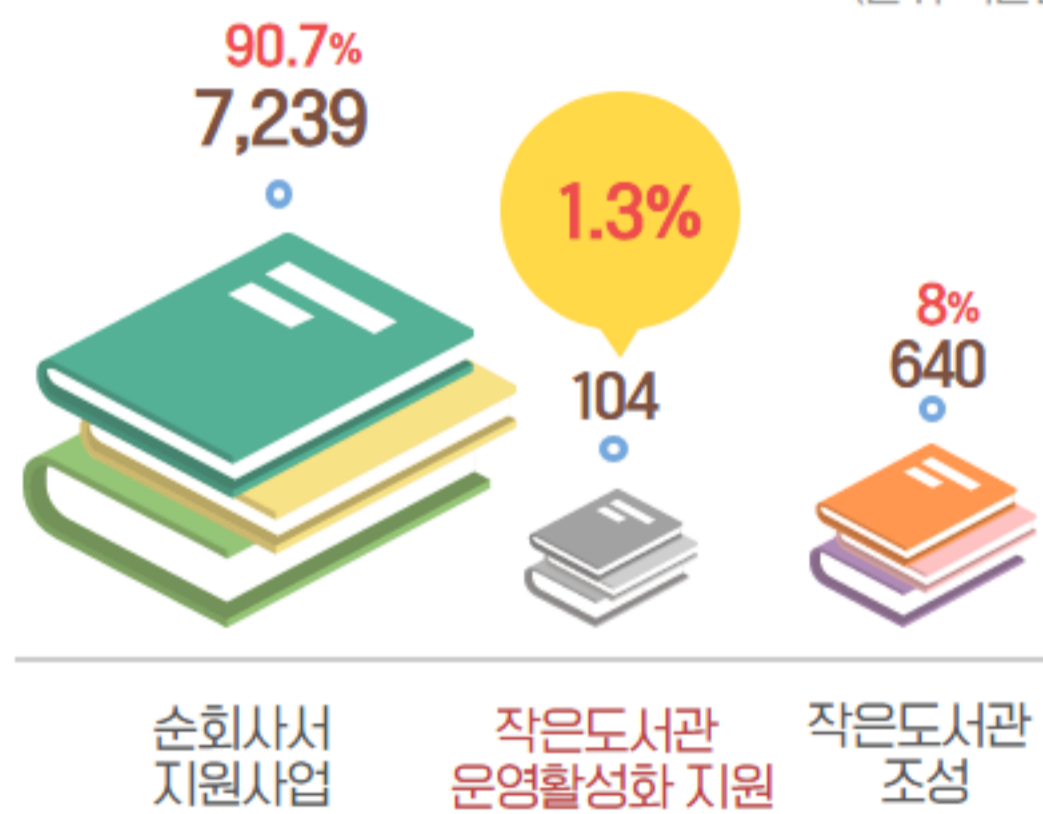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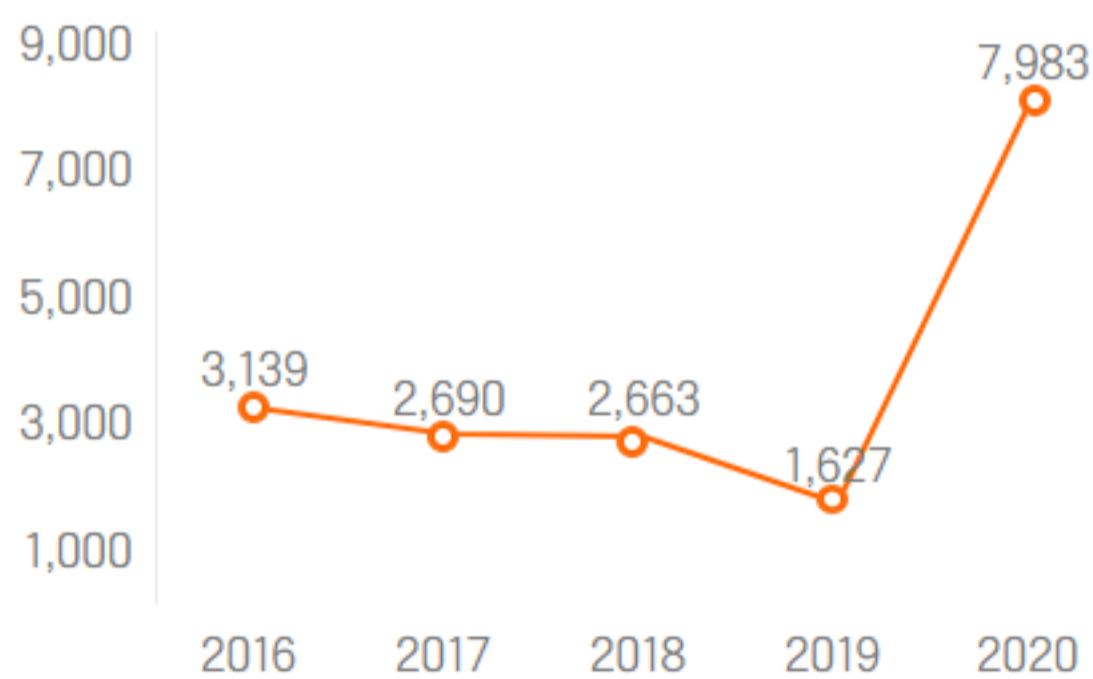
■ 출판산업육성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 도서관정보 정책체계 활성화 ■ 국립중앙도서관운영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예산 7,983백만 원의 90.7%(72억 원)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작은도서관 조성 8%(약 6억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약 1억 원)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작은도서관 예산 약 46억 원 전액이 조성 예산으로만 편성되었다. 이는 비슷한 사회서비스 기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예산(지역아동센터 1830억 원, 어린이집 확충 748억 원, 노인단체 지원 405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 환경개선비, 공기청정기 지원, 민간단체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지원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과 비교해 특정 사업과 조성에만 집중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의 규모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 방향에 영향을 끼쳐 작은도서관의 운영 성패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독서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 예산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 6,300여 개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양질의 인력배치 및 인건비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환경개선비, 민간단체 지원 및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기청정기 및 책 소독기와 같은 필수 기자재 지원을 요구한다.

작은도서관 예산

(참고 : 2020 예산각목명세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단위:백만원)



기대효과

- 중앙정부의 지원은 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정체성 확립과 공공성을 확대시킨다.
- 중앙정부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끼쳐 전체 작은도서관의 질적 개선을 돕는다.
- 운영비, 환경개선비, 민간단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한다.
- 인건비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인재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독서문화가 확산되며 문화복지사회로 이끌 것이다.

문화복지사회
작은도서관이
펼쳐나갑니다

1세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8-7, 2층 | 전화 02-388-5933 | 팩스 02-388-5922

<http://smalllib.org>